

직장남성들의 근무복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박 선 희* · 서 미 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기업의 근무복은 소속된 기업의 이미지와 부합되어야 하며 시대적인 패션감각이나 미적인 면에서도 뒤떨어져서는 안되며 또한 근무환경에 따라 작업에 대한 기능성을 증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직장남성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근무복 현황을 조사하고 현재 착용하고 있는 근무복에 관해 근무복 만족도, 선호도, 착용도, 관리도 등을 조사하여 근무업종, 직위, 근무시간, 근무경력, 연령, 학력, 결혼여부, 월평균 수입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인 근무복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우리나라 8개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남성 40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근무복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각 문항마다 빈도, 상대빈도를 구하고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는 크로스테블레이션에 의한 χ^2 검증을 하였다. 또한 각 기업체측 관리자에게 근무복의 디자인 결정과정과 구입방법 등에 관해서 인터뷰에 의한 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근무복의 디자인은 스케치하여 도식화로 표현하였다.

1. 각 기업의 근무복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디자인에 있어서는 점퍼스타일이 많았으며, 색상은 기업마다 자신의 기업이미지색을 보여주었으며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이 더 많았고,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100%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합성섬유와 천연섬유의 혼방직물의 사용은 적었다. 근무복 지급은 주로 본사보다 현장이 더 자주 지급받고 있었으며 개인 치수를 계속하는 경우는 적었고 근무복 대금지불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었다. 근무복디자인의 결정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2. 근무복에 대한 만족도는 디자인·색상·소재·치수·기능 만족도에서 모두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족한 경우에 디자인 불만족 이유로는 구체적인 디자인이 맘에 들지 않는 다거나 디자인이 단순해서 지루함을 느낀다거나 디자인이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색상 불만족 이유로는 색상이 어둡다, 색상이 단순해서 지루함을 느낀다는 순이었으며, 소재 불만족 이유로는 보온 또는 통기성이 좋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수불만족 부위로는 상의의 경우 가슴둘레, 하의의 경우 바지길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시간이 길수록 치수 불만족도가 크게 나타났다. 근무복 착용시 활동이 불편한 점으로는 몸을 굽힐 때가 가장 많았고 활동시 불편 부위로는 상의의 경우 넓이 즉 팔, 하의의 경우 허리부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시간과 상의 불편부위와 관계가 있었는데 8시간 이하는 소매부위, 9-10시간은 허리부위, 11시간 이상은 품에서 높게 나타났다. 근무복에 대한 불만족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근무복에 대한 선호도에서 디자인 선호도는 근무환경과 적합한 디자인, 개성적인 디자인, 회사의 이미지와 맞는 디자인 순이었으며, 색상 선호도는 베이지색 계통, 파란색 계통, 회색 계통 순

으로 나타났다. 소재 선호도는 보온 또는 통기성이 좋은 섬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늬 선호도는 모든 근무업종에서 무늬 없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행정관리직과 사무직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더 무늬없는 것을 선호하였다. 여침방법 선호도는 상의·하의 모두 지퍼가 가장 높았다.

4. 근무복 착용도에서 착용여부는 항상 착용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직은 근무복의 착용도가 매우 높았으며 근무시간이 길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항상 착용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복 활용도는 근무 중에만 입는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근무복의 중요성은 기능성, 상징성, 독창성, 심미성, 유행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기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았고, 근무복의 중요성을 상징성과 기능성에 두는 사원일수록 근무복을 항상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복 착용시 업무의 효율성은 수월하다로 나타났고 학력이 낮을수록 근무복 착용시 업무가 더 수월하다고 느꼈으며, 업무가 수월하다고 느낄수록 근무복 착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근무복 착용시 직장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는 편으로 나타났고 근무복 착용시 소속감을 느낄수록 근무복의 상징성, 기능성을 중요시 함을 알 수 있었다. 근무복의 디자인에 대해 만족감이 클 때 근무복 착용시 느끼는 소속감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근무복 관리도에서 근무복 오염부위는 상의의 경우 소매끝, 칼라, 앞단 순이었고 하의의 경우 밑단, 무릎부위, 엉덩이 부위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의의 경우 소매끝은 다른 직종에 비해 전문·행정관리직과 사무직에서, 칼라는 다른 직종에 비해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하의의 경우 무릎부위는 다른 직종에 비해 생산직에서, 엉덩이 부위는 전문·행정관리직과 사무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복 손상부위로는 상의는 소매끝, 하의는 지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오염이 잘될수록 쉽게 해짐을 알 수 있었다. 소매끝의 손상도는 다른 직종에 비해 전문·행정직과 사무직에서, 칼라, 지퍼의 손상도는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근무복 관리에서 근무복 세탁방법으로는 물빨래가 많았고, 다림질을 안하는 편이며, 집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산직일수록 물빨래가 많고 회사에서 세탁해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판매·서비스직은 드라이 클리닝하는 빈도와 다림질하는 빈도가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시간이 길수록 집에서 세탁을 하며, 다림질을 안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세탁회수를 4개월 모두 조사해 본 결과 여름에 가장 자주 세탁함을 알 수 있었으며, 생산직이 가장 자주 세탁함을 알 수 있었다. 새 근무복 관리는 지난번 것과 번갈아 입는다, 회사에 반납한다, 그대로 둔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위가 낮을수록 지난번 것과 번갈아 입는 경우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